■ 민주 정세균 대표 나주 혁신도시 전격 방문 왜

‘MB 바람’ 잠재우고 당내 갈등 봉합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형제간… 제대로 추진해야 광역단체장 영산강 기공식 참석 시기상 부적절”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26일 영산강을 전격 방문,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여론전에 맞불을 놨다.

정 대표는 애초 이날 영남지역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발길을 돌려 광주·전남지역을 찾았다. 지난 22일 이 대통령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 기공식에 참석, 영산강 인근 주민들의 여론을 환기시킨 데 대한 대응 방문으로 해석됐다. 또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최근 노출된 당내 이견을 봉합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됐다.

정 대표는 이날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전남도당 여성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한 뒤 광주의 한 호텔에서 지역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나주의 혁신도시 현장을 방문했다.

정 대표는 전남도당 여성위원회 워크숍에서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지원을 강조한 데 이어 광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선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축소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 대통령이 기공식을 이곳에서 연 것은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고 비판한 뒤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과 내용이 똑같다. 그리고 4대강 사업 중 영산강사업은 다른 강사업에 들러리 서는 형국이다”며 “영산강을 들러리 세우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문제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어 영산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수질 개선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오염원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수질이 개선된 다음에 수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그런데 수질이 개선되기 전에 보를 설치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4대강 사업은 이것을 거꾸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간담회 이후 나주 혁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한 정 대표는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형제간이다. 9부2처2청이 내려와 행정복합도시가 만들어지고 이와 관계가 많은 150여개 기관이 분산되는 것이 혁신도시 건설의 아이디어다”며 “이 이란성 쌍둥이는 제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역에 마중나온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와 5분간 비공개 담소를 나눴다.

두 단체장은 지난 22일 4대강 사업 기공식에 참석하면서 당내 논란을 촉발했다. 이 자리에서 두 단체장은 당시 발언배경과 오해에 대해 적극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 대표는 시기상 부적절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광주·전남 시·도지사의 발언내용을 확인한 결과, 광역단체장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이해하나, 대운하 사업으로 이해되는 4대강 사업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고려됐어야 한다”며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내부의 갈등을 즐기는 세력이 있고, 이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의 들러리격인 영산강 사업 기공식에 온 것도 분란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나라당이 깔아놓은 판에 휘말리지 않도록 더 이상 당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란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여 자칫 내부 전력약화 요인으로 비화될지도 모를 논란의 조기 봉합을 시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DJ 서거 애도 광주·전남 지역민에 감사”

이희호 여사 국립 5·18묘지 참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26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진심으로 애도한 광주·전남 지역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여사는 이날 오후 5시께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묘지를 찾아 헌화·참배하고 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다. 참배에는 박광태 광주시장, 박지원 의원, 윤철구 김대중평화센터 사무총장 등이 함께 했다.

참배에 앞서 이 여사는 방명록에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영령께 경의를 표합니다’는 글을 남겼다.

이 여사는 참배 도중 감정이 북받친듯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자주 비쳐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참배를 마친 이 여사는 묘역을 찾은 시민들과 악수하며 김 전 대통령을 애도해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여사는 27일 남구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방문해 이용자들을 격려하고, 김 전 대통령의 자료가 전시돼 있는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찾아 ‘김대중홀’을 둘러보고 ‘실버박람회’를 관람한 뒤 상경할 예정이다.

박지원 의원 측은 “김 전 대통령 서거 100일을 맞아 그동안 진심으로 추모해준 광주·전남 지역민들에게 감사드리고자 광주를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87년 6·29선언으로 사면을 받고 5·18묘지를 처음 참배했으며, 2000년 현직 국가원수로서 처음으로 5·18기념식에 참석, 광주와 5·18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한 ‘대통령과 대화’ 기대-비판 엇갈려

“소신 밝히면 여론 움직일 것” “뒤늦은 사과는 감동 못준다”

한나라당은 27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를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과 대화를 기점으로 세종시 수정론을 둘러싼 여야 대립과 당내 갈등이 변곡점을 맞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친이(친이명박)계는 조마조마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이 소신을 진솔하게 전달한다면 비판적인 국민여론을 돌릴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자칫 여론의 핵심을 돌파하지 못할 경우 비판의 불길에 부채질 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친이 직계 의원은 26일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소신을 밝히고, 국민을 설득한다면 여론을 움직일 수 있다”고 전망했고, 원내 관계자는 “논리보다는 감성적 방식으로 접근하면 세종시 난제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의 한 의원은 “대통령이 비장한 각오로 소신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사과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며 “하지만 대통령과 대화가 통상적이고 적당한 수준에 그칠까봐 우려된다”고 밝혔다.

세종시 수정론에 반대하는 친박(친박근혜)계 분위기는 우려를 넘어 비판이 주를 이룬다. 뒤늦은 대통령의 사과와 입장표명은 국면전환용으로 비쳐 진정성이 없다는 것. 오히려 갈등과 혼란의 소지만 더 키울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영남지역 한 의원은 “과연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말한다고 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더 큰 분쟁이 시작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고, 수도권 한 의원은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면서 계파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른 의원은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든 해명이든 타이밍을 놓쳤다”며 “한바탕 소용돌이가 일어난 뒤인 지금에서야 대통령이 나서는 것은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국토위, 예산안 심의 착수

여야, 4대강 사업 입장차

여야 대치로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 국토해양위가 26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착수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과 관련, 여야 간의 입장차가 현격해 격론이 오갔다.

한나라당은 수해예방과 수질개선, 관광자원 개발 등을 위해 4대강 사업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예비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는 등 무리한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비판했다.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이미 지난 추가경정예산에도 반영됐던 것인데 민주당이 유난히 올해 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정략적 차원에서 의도된 것이 아닌가 한다”고, 같은 당 백성운 의원은 “재해 예방사업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하는 기본 책무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을 거치지 않는다”고 각각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강 수질 개선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보를 설치하는 데 문제가 있다”며 “보는 유속을 느리게 하고 홍수가 나면 장애물이 돼 오히려 수질을 악화하고 피해를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영삼 전 대통령이 26일 저녁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동교동계와 상도동계의 ‘화합 만찬’을 주재, 권노갑 전 의원 등 동교동계 인사들과 건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DJ와 난 죽음 두려워 않고 투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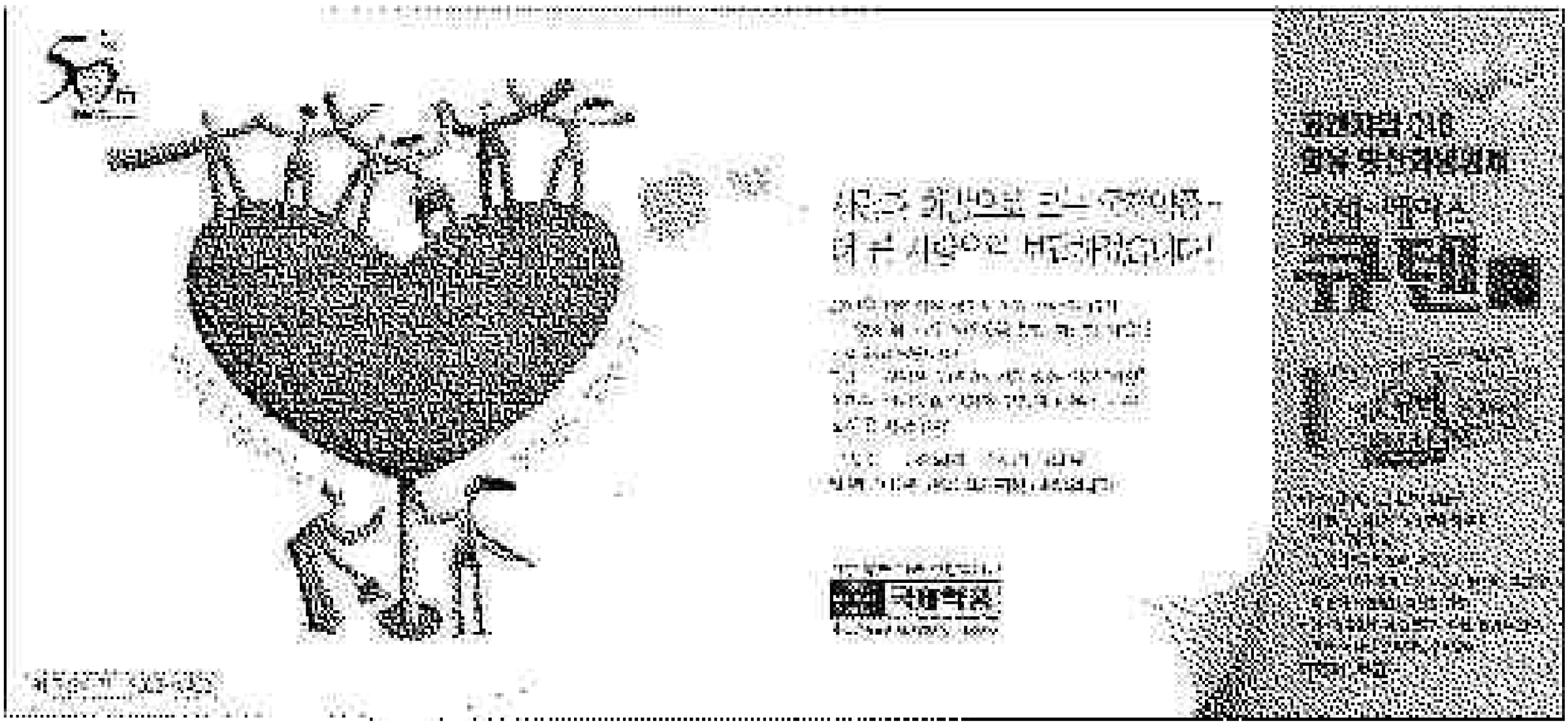
YS, 동교동-상도동계 만찬 주재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26일 밤 동교동계와 상도동계의 ‘화합 만찬’을 주재,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서거 101일째인 이날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만찬에서 “이 나라 민주주의는 상당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앞에는 아직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크나큰 정치가이자 우리 정치사회 거목이었던 김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진심으로 가슴이 아프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국장기간 여러가지 수고를 많이 한 동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민주화 투쟁을 회고, “모두가 숨죽이고 있던 그때 김 전 대통령과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장한 각오로 무섭게 투쟁했다”면서 “만약 김 전 대통령과 내가 협력해 투쟁하지 않았다면 이 나라는 지금도 아웅산 수지 여사가 고통받는 미얀마처럼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동지들과 함께 이 나라 민주주의를 쟁취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동지 여러분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주역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격려했다. 만찬에는 동교동계에서 60명, 상도동계에서 30명 등 90여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연합뉴스